

마가복음에는 소위 예수의 부활이야기가 없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헬라어 사본으로 서기 4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내산 사본(Ⲙ)과 바티칸 사본(B)에 따르면 마가복음이 16장 8절로 끝난다(Bruce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122-26). 한글 성경과 다른 번역본에 포함된 막 16:9-20은, 후에 첨가된 여러 개의 부활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긴 본문이다. 성서학자들 간에는 이 첨가물(?)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하고, 기존 교회들은 부활이야기가 없었다는 주장에 영 심기가 불편하다. 이 둘을 아우르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막 16:1-8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우선 여인들이 무덤에 와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본다. 이 돌을 누가 옮겼을까? 무덤 안에 있는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을 전하여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도록 명한다. 그리고 여인들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나로 엮어서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숙제다.

마가복음의 부활이야기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의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여겼다(고린도 전서 15장). 아마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이야기는 마가복음 이전에 이미 초대 교회에서 끊임 없이 논의되고 웬만큼 정리가 되었겠지만, 마가복음은 예수 자신의 부활이나 죽음 이후의 여정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예수가 처형당한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가복음은 아무 것도 전하지 않는다. 단지 몇몇 여인들이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한다.

이상하리 만치 여인들이 마가복음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다. 예수가 처음 병 고침을 행한 대상도 시몬의 장모고 그 여인은 예수를 섬긴다(1:30-31). 마지막에도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상태에서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의 죽음을 지키고 또 다음날 예수의 무덤에 나타난다(15:47; 16:1). 모든 제자들이 무서워 문밖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의 무덤에 나타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따라서 여인들은 아무도 모르게 이른 새벽에 무덤에 온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랴, 죽은 자의 몸에 향료를 바르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갑작스런 죽음을 당한 고인에게 베푸는 마지막 예(禮)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인들은 죽은 예수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해주는 대신에 오히려 자신들이 할 일로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받는다. 너희가 예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제 없다.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데 필요한 향료는 이미 이름 없는 여인에 의해 드러졌다(14:3-9). 할 일이란 고인의 뜻을 받드는 일인데, 그것은 갈릴리에서 시작한 하느님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다. 여인들과 제자들이 당시에는 그 뜻을 몰랐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16:8).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나지만, 여전히 꺾가에 맴도는 여운이 있다. 너는 어떻게 하려느냐? 너도 두려우냐? 결국 마가복음은 오늘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는 말이다.

부활과 정의(正義)

마가복음에서 부활은 정의가 승리함을 말한다. 마지막 때와 관련해 불의한 자도 부활하여 심판을 받지만(단 12:2; 마 25:46; 계 20:13), 마가복음에서 불의한 자의 운명은 관심사가 아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예수가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가 하느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무덤 안에서 흰 옷을 입고 오른편에 앉아 있는 청년이 누구일까? 그 청년이 예수를

삼인칭으로 묘사하고 있으니, 분명 예수 자신은 아니다. 흰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은 성서 전통에서 천사와 같은 존재를 의미하거나(단 7:9; 행 1:10; 계 4:4; 19:14) 혹은 순교자를 상징한다(계 7:9, 13). 마가복음에서 흰 옷은 변화산 체험에서 변모한 예수를 연상시킨다(9:3).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을 미리 본 것일까? 그렇다면 자신의 옷을 벗어 버리고 도망한 자가 순교를 의미하는 흰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름 없는 여인의 이야기처럼 이름 없는 청년의 말없는 행동에서 마가 공동체의 모습을 엿본다.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의 모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생각의 변화—없이는 불가능하다.

누가 우리를 위해 커다란 돌을 굴러내 주겠는가? 여인들은 바위가 무덤을 가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15:46-47). 그런데 그것을 옮길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덤에 왔던가? 눈을 들어 보니(ἀναβλέπω), 돌이 옮겨져 있었다. 여기서 ‘눈을 들어 보다’는 것은 무덤이 언덕 위에 있어서 고개를 들어 올려 보았다는 뜻이 아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소경의 눈 뜸과 관련이 있다(8:24; 10:51-52). 소경이 다시 보게 됨을 말할 때 쓴 표현으로, 제자들이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예수의 무덤을 막은 커다란 돌은 로마제국의 강압적 힘을 상징한다. 이렇게 바위로 막힌 것과 같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본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성전이 놓인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바로 그 ‘하느님의 믿음’(11:22)으로 세상의 지배체제를 이긴 것이다. 예수를 가둔 커다란 바위가 상징하는 로마제국과 지배체제가 새로운 눈, 깨달음과 함께 새벽 안개처럼 사라진다.

갈릴리로 간다 함은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 예수가 한 일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1:17)는 초대였고, 결국 갈릴리에 담긴 뜻은 예수의 길을 따라 걸으라는 촉구다. 예수의 길을 버리고 도망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한 말이다(16:8).

부활이 ‘죽은 자의 다시 살기’라고 치고 여기서 죽은 자란 앞서 산 자—선생(先生)—의 삶이 옳았다는 외침이다. 세상의 지배자와 그 지배체제에 의해 처형당했던 예수의 치열한 삶이 최고 법정으로 상징되는 하느님의 우편에 앉음으로써 결국 예수의 승리를 선포한다.

성서 다시 쓰기

성서를 다시 쓴다는 생각이 일견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서 자체가 이런 신학적 자기반성을 일관성 있게 증거하는 바다. 구약 성서신학의 큰 두 줄기를 말하라면 아브라함/다윗 전승과 모세/신명기 전승을 들 수 있다. 비록 학계에서는 창세기의 역사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기초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곤 하지만, 성서의 현 배치로 볼 때 창세기(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가 출애굽기(모세와 맺은 언약) 앞에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두 개의 다른 신학적 입장을 뿐 아니라, 지배신학에 대항하는 예언자적 상상력을 고취시킨다(Walter Brueggemann, *The Prophetic Imagination*).

□

이런 예언자 전승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참과 거짓 예언자 논쟁인데, 지금의 말로 하면 교회사에서 이단 논쟁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상충된 예언이다(예레미야 28장). 하나냐는 기원전 8세기 이사야의 예루살렘 신학에 기초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을 거짓 예언으로 보았다. 당시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이단의 신학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똑같은 성서 전통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는 유대인의 정체성 형성에 기초가 된다. 이사야 51:1-2는 바벨론 포로기 당시 유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였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이 없었지만, 하느님의 은혜로 그 수가 번창하였다. 너희는 숫자가 많으니 더욱 잘되지 않겠느냐는 위로의 말이다. 그런데 똑같은 전통이 에스겔 33:24에는 다른 목적으로 쓰였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의 저 폐허 더미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인데도 이 땅을 차지하였는데, 하물며 수가 많은 우리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한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주었다고 말한다.
(표준새번역)

에스겔이 예언한 시대적 배경은 예루살렘이 함락한 시기다(겔 33:21).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전통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이사야의 신학에 기초한 하나님처럼 전통을 중시하는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런 믿음을 꾸짖는다. 시대적으로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할 시점에 그들은 여전히 아브라함 전통이 자신들을 구해줄 것이라 여겼다. 거짓 희망이고 맹목적 신앙이자 잘못된 신학이다. 이렇게 똑같은 성서 이야기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리 읽히고 적용된다.

그럼 왜 성서를 다시 쓰는가? 신학 다시 하기와 마찬가지로 성서가 자신들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성서는 늘 현재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비록 그 내용이 과거의 이야기를 담지만,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들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믿을 때, 성서가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마가복음이 16:8로 끝난 것에 대해 본래 마가복음의 ‘적절한’ 끝맺음 부분이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다. 성서가 본래 어떤 모습을 취했던 간에, 현재의 상태에서 성서가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 마가복음이 16:8로 끝났다고 해도 하등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16:8절 자체로도 충분히 독자들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막 16:8). 성서는 우리에게 도전한다. 과연 이대로 좋은가?

끝나지 않은 부활이야기—The story continues

부활(復活)은 저 세상에서의 삶을 기다림이 아니다. 또 부활이 예수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마가복음은 부활 이후 예수의 삶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전하지 않는다. 마가복음은 예수의 부활을 당연한 것으로 가정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기 보다는 오히려 남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는 어떻게 하려느냐? 막 16:8 이후는 이에 대한 각각의 응답이다. 자신들 이야기고 성서 다시 쓰기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에는 처음 소개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잘 알려진 전통이다(눅 8:2; 요 20:18). 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 장면(16:12-13)은 엠마오의 두 제자를 연상시킨다(눅 24:13-35). 열 한 제자에게 예수가 나타난 것도 다른 복음서는 전한다(눅 24:36-49; 요 20:19-23).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한 것이나(16:15)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15:19) 역시 초대 교회가 공히 전하는 바다(마 28:19; 눅 24:47, 50-51).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누가 돌을 옮겼을까? 하느님이 옮겼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지만, 하나만 더 묻자. 누가 하느님이 옮겼다고 말하는가? 현장에는 오직 청년만 있다. 이 사람이 바로 앞에서 걸옷을 버리고 도망했던 그 청년으로 본다면(14:51), 그가 예수께 돌아온 장면이다. 예수를 가둔 세상의 힘을 이기고 그 어둠 속에서 예수를 끄집어 낸 것이다.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지 않는 한 예수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9:9). 청년이, 제자들이, 마가 공동체가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낸 것이다. 예수의 부활이야기는 마가복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예수의 부활을 시작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된다.

막 16:9-20은 제자들 자신들의 소명과 응답을 적고 있다. 마가복음의 끝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넣어 마가복음을 완성시킨 것이다. 함께 쓰는 예수 이야기—이를 위해서는 우리도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길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그것이 예수가 시간적으로 우리를 앞서 혹은 공간적으로 우리들 앞에서 갈릴리로 간다는 말이고(προάγω, 14:28; 16:7), 거기서 예수를 만난다는 뜻이다. 막 16:8 이후에 우리는 우리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는 무엇인가? 마가복음이 우리들에게 묻는 마지막 질문이자 마가복음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생각할 거리

1. 마가복음을 읽고 여전히 내게 남는 질문은?
2. 내가 만난 예수 이야기를 해 보자. 그것이 예수의 복음, 정신과 어떻게 부합하는가?